논어 5편 공야장 6장 · 원문·풀이

子使漆雕開仕。對曰：「吾斯之未能信。」子說。

독음 · 자사칠조개사 대왈 오사지미능신 자열

쉬운 풀이(요약) · 칠조개가 아직 자신이 없어 벼슬을 맡지 않겠다고 하자 공자는 그의 신중함을 기뻐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使 하여금 사 사 / 漆 옻나무 칠 칠 / 雕 독수리 조 조

開 열 개 개 / 仕 벼슬할 사 사 / 對 마주볼 대 대 / 曰 가로 왈

吾 자기 오 오 / 斯 이 사 사 / 之 갈 지 / 未 아닐 미 미

能 능할 능 능 / 信 믿을 신 신 / 說 기쁠 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